

LOCAL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나주, 자연·문화 어우러진 힐링 ‘시민쉼터’ 조성



여수 마리아나 이용자 중심 개선 불편사항 해소 등 활성화 노력

여수시가 마리아나 시설 관리를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재편, 마리아나 이용 불편 사항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요트마리아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사와 마리아나 운영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마리아나 관리를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재편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수탁사'에 대한 성과평가(2월 7일)와 '기간연장 평가(2월 28일)'를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해 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마리아나제위탁비상위촉과 간담회 2회, 시의회와 간담회 1회 등 총 3회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수탁사의 재운영을 주장하는 촉과의 간담회도 1회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마리아나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해 마리아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여수가 명실상부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2006년생 청년에 15만원 제공

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2006년생(19세) 청년들에게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딛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이다. 1인당 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며, 패스 발급 방법은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에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자격 검증을 거친 다음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이 회수돼 유의해야 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사업비 35억 투입...‘백룡제 테마공원’ 사업 착공 내년 7월 준공...“관광 자원화·명품 관광지 도약”

나주시 다시면 백룡제 일원에 자연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이 만들어진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다시면 백룡 저수지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첫 삽을 뜬 백룡제 테마공원엔 총면적 2만5508㎡의 백룡 저수지 앞 유휴부지(다시면 운봉리 262-2번지)에 쉼터와 개울, 야생초 화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116면, 화장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인 삼봉 정도전 선생이 고려 말기 나주로 유배돼 민본에 바탕을 둔 통치 철학을 설계한 것을 인연으로 테마공원 내 '정도전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업비 35억원(도비 50%·시비 50%)을 투입하며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백룡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기본 계획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해 시작됐다.

특히 윤병태 시장이 전남도 정무부지사



나주시는 지난 11일 다시면 '백룡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로 재임했던 지난 2020년 당시 문화관광 자원개발 신규사업으로 백룡제 테마공원 조성을 확정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는 백룡제를 문화와 여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조성해 주민 쉼터와 더불어 다시면 소재 삼봉 정도전 초당, 한국

전연염색박물관, 북암리고분전시관과 문평면 소재 내대용 장군 생가(소총사), 나아가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안창 파크골프장, 공산면 소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백룡제 테마공원은 단

순한 공간 준비를 넘어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삶의 풍요를 키우는 사업이다"며 "시민 모두가 소통하며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쉼터이자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서 봄꽃 보며 색다른 미식경험 하세요”

시, 29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서 '미식주간' 운영

순천시는 순천 미식을 알리기 위해 '순천의 맛, 봄'이라는 주제로 '2025순천미식주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미식주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에서 열리는 현장 행사를 시작으로, 미식투어와 전통 차 체험, 맛집 도장깨기 등 다양한 미식 프로그램이 순천 곳곳에서 펼쳐진다.

봄의 꽃이 만연한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하는 주말 현장 행사에서는 순천의 맛집과 계절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순천 맛집 인증서, 유명셰프와의 미식워크숍&푸드쇼, 지역 셰프와 함께 하는 봄 푸드다이닝, 음식거리 테마 음식전시관, 순천 외식업소와 함께하는 미식마켓&미식체험존 등이 운영된다.

정원 미식피크닉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봄의 미식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행사 외에도 순천 곳곳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식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연의 정취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듣고 음미하는 미식 낭만투어 '낙안풍류'와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



한 쿠킹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장상인과 함께하는 전통 시장 투어' 같은 미식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넓은 정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정원 티마기세'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식주간에서는 봄의 꽃과 천혜의 자연에서 난 미식자원이 결합된 특별한 미식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며 "추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의 순천을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스마트팜 도입...농작물 품질·생산성 '쑥'

테스트베드 운영·전문가 컨설팅 등 효과

함평군이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스마트팜 활용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농업인 교

육,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농업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등 다양한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

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올해는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해 4개 농가에 스마트팜 모델 보급을 하며 다양한 스마트농업 정책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도입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함평=최원일 기자



화순군은 최근 2025년도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화순, 농업 혁신 이끌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화순군은 최근 2025년도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입학식은 화순 농업의 미래를 이끌 어갈 입학생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운영 안내, 경과보고, 입학 선서, 축하 인사, 특강·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한영석 경중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꿀값을 다 하는 농업인이 되자'를 주제로 지역 공동체에서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마인드 함양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제18기 화순군농업인대학은 스마트한우과와 신규농업인과 두 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론·실습 교육, 선진지 견학 등 20여회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한우과는 교육생의 기술 수준에 맞춘 교육과 최신 기술 발전을 반영한 ICT 기반 한우 사육 및 축사 관리 교육을 제공하며, 사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신규농업인과는 농업 기초 이론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해 농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북규 군수는 "이번 농업인대학은 농업인의 변화된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